



기획시리즈



조경수의 수형교정

이상웅/향촌 조경수, 조경수생산
유통 심의위원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행정리 250
(0339) 353-0747

조경수를 생산하다 보면 수
관폭은 넓고 키만 장대같이 커서
조경업자가 마땅치 못하게 생각
하며, 심하면 출하하기 어려운 처

지에까지 이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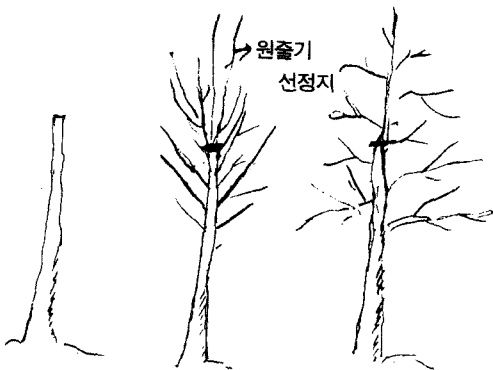
이러한 경우는 식재 당시 너무
밀식하여 그러한 경우도 있고, 몇
차례 규격품을 출하한 후 수형을
교정하지 않고 재배한 경우도 있
다.

어려서의 수형은 좋았다 하더라
도 나무가 점점 자람에 따라 광선
을 못받은 밑가지는 고사하고, 수
형은 점점 흐트러지게 마련이다.

그렇다하여 식재간격을 너무
넓혀 식재하면 제초관리에도 문
제가 있고, 또한 주수가 적어 판
매 수익도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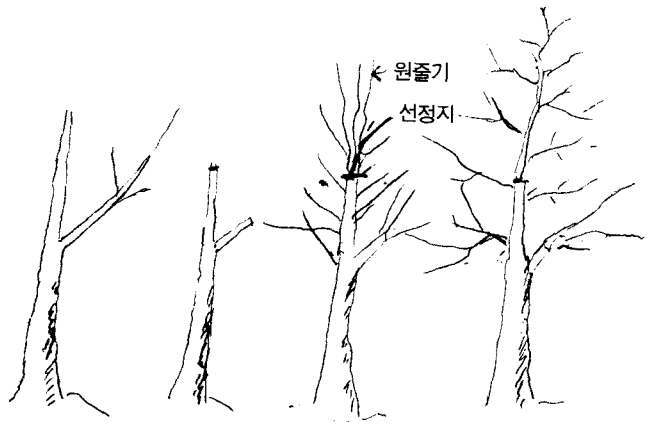
따라서 식재하는 수종의 규격
이 얼마일 때에 가장 수요가 많은
가를 계산하여 식재 간격을 결정
하며, 수시로 좋은 수형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진다.

수형을 교정해 주어야하는 수



전정시 전정 1년 후 교정된 수형

(1) 외대의 수형교정



정전 전 전정 당시 전정 후 1년 경과 교정된 수형

(2) 가지가 하나 있는 경우

종은 특히 메타세콰이어, 회화나무, 당단풍, 참나무류, 모감주나무 등의 속성수가 이에 속한다.

수형을 교정하기위해 전정하는 시기는 잎이 떨어져 있는 휴면기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여름 전정은 나무의 세력을 약화시키며 휴면기 전정은 세력을 강화시킨다.

이는 가지와 잎이 많은 상태에서 동화 작용을 하여 모든 기관과 조직에 많은 영양을 축적해야 되는 시기에 전정을 하면 세력이 약하여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조경수를 다루는 관계자 들은 봄에는 워낙 일손이 부족하여 전정 시기를 놓치기 쉽다.

따라서 전정 시기를 염두해 두었다가 가을에 잎 진 후부터 겨울

사이에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식재거리와 수목 형태에 따라 다르겠으나 봄까지 전정을 못하였다 하여도 5~6월 중으로라도 실시하는 것이 경영상으로 유리하다.

수형 교정 방법은 근경이 6~7cm, 수고가 5~6m인 수목에 대하여 우선 가지의 길이를 40~50cm 정도로 남기고 끊어낸 후 수고를 2.5m 되는 곳에서 키를 일정하게 잘라 새 가지를 발생시킨다.

새로 발생된 가지와 줄기는 부분적으로 너무 밀생한 곳과 성긴 곳이 있다. 따라서 1~2년이 지난 후에 밀생된 가지는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균일하게 하고 가지의 방향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솎아내 주며 최고 정상부의 상순은 제일 굵고 직선으로 올라간 원줄기를 이어줄 새순 한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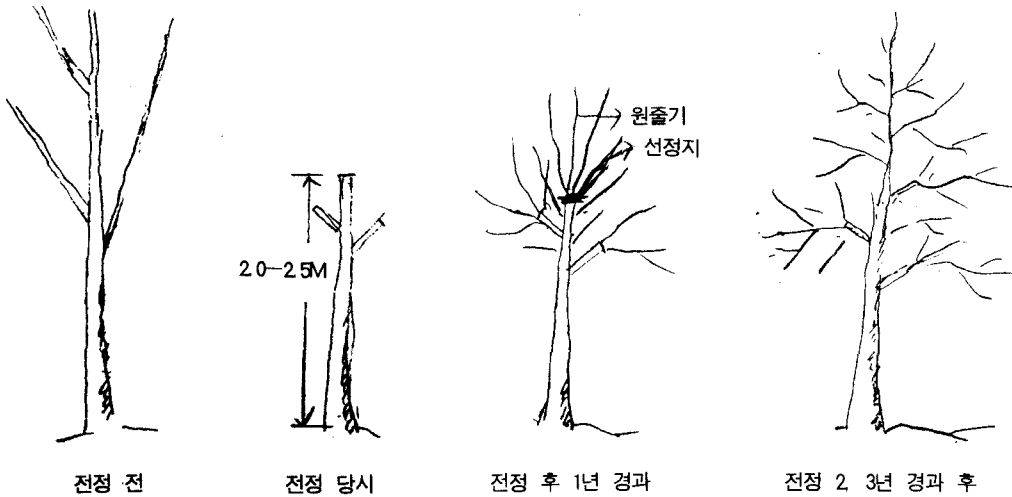
만을 남기고 제거하여 준다.

수형 교정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주간지의 골격을 세워 수간을 연결시킬 원순을 1개만 남기는 것이다.

주간지를 1개만 세워주지 않으면 수형이 빗자루 모양으로 되어 좋은 수형이 될 수 없다.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배상형이라 하여 우산살처럼 퍼진 것이 좋은 수형이라 하겠으나 대부분의 수종은 자연스러운 좋은 수형이 되지 못한다.

조경수의 재배는 묘목을 생산하고 심고 거름 주는 기술보다 끊는 기술이 더 중요한지도 모른다.

이무튼 많은 돈을 투자하여 애써 가꾼 수목이 수형이 좋지 못하면 제 값을 받지 못함을 염두하고 항상 손질하는데 힘써 좋은 수형의 조경수를 생산하도록 해야겠다.



(3) 가지가 2개 이상 있는 경우